

#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윤회의 굴레에 빠져

성태용 교수의  
순오공이 기가 막혀

## ◎ 사오정과 저팔계의 인연

저번에 관세음보살이 사오정과 저팔계 만나 불문에 들고, 서역에 불경 가지러 오는 사람 보호하면서 오게끔 예비한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오정과 저팔계 만나는 대목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오정은 유사하에서 요괴로 살면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행인들을 잡아먹었다 합니다. 그 가운데는 서역 땅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홉 사람의 해골은, 거위 털도 가라앉아 버린다는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겁니다. 이 대목! 참으로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뗏목도 띄우지 못하는 유사하! 그런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고 뜨는 불경 가지러 가던 이들의 해골! 얼마나 신명나는 대목입니까? 그분들의 뜨거운 마음, 불법을 구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였기에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현장법사가 불경을 가지러 가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룩했기에, 세상은 현장법사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전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길을 추구하였지만 실패했던 분들의 뜨거운 구도심은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일까요? 실패했기에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유사하에도 가라앉지 않는 해골처럼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들은 결국 역할을 합니다. 뒷이야기 좀 미리 당겨서 할게요. 거위 털도 가라앉기에 뗏목도 띄울 수 없는 유사하를 어떻게 건넌까요? 경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건너지 않을 유사하, 그 강에 유일하게 뜨는 것은 바로 그 전에 경을 가지러 가다 사오정에게 잡혀먹힌 아홉 분의 해골뿐입니다. 결국 그 해골로 뗏목을 만들어 유사하를 건널 수밖에요.

바로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성공한 이들의 찬란한 기록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성공은 언제나 그 바탕에 수많은 앞선 이들의 희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귀한 마음과 열정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뗏목이 되어 험난함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이 없이 스러진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나게 성공한 이름들의 뒤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잘 나서 이 험난 세상을 그러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험난 세상을 파도를 헤쳐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뗏목이 되어주신 수많은 앞선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난 지극한 복을 누리는 것부터가 그런 것이라는 걸, 서유기는 유사하에 뜨는 해골들도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늘 잊고 살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 그 고귀



그림 · 최주현

한 은혜를 뗏목으로 삼아서 우리는 고해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고귀한 희생의 상징, 해골의 뗏목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유기 읽다가 이 대목에서 울컥하는 느낌에 한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 대목에서 울컥하는 마음에 글을 더 읽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하. 그래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 많으니까 그만 앞으로 나가볼까요?

그다음 저팔계 나오는 대목의 이야기 한번 해보지요. 저팔계도 하늘에서 비슬하다 죄를 지어 하계로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팔계 이야기 좀 재미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보자고 어미 자궁 속으로 들어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 암탉이 자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윤회의 비밀을 담고 있지요. 불교의 윤회전생은 염라대왕이 전생을 생활기록부(?) 보고 “너는 무엇으로 태어나 거라”하는 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죽어 몸을 떠난 업식(業識)은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평생 지은 업과 가장 잘 맞는 곳에 가면, 그곳이 너무도 편안하고 좋아 마치 하늘 세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놀러갔으면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게 같은 짓만 해서 개와 습성이 가장 잘 맞는 업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감각기관은 없으니까 보고 듣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게 집 가까이 가면 자기와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서, 마치 꿈속에서처럼 환황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놀러갔으면 바로 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팔계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 돼지의 자궁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사람으로 태

### ‘유사하’는 경쟁사회의 단면드러내 사오정은 승자독식 세계의 인간 저팔계는 욕망때문에 돼지로 환생 세속의 욕망이 넘치는 사바세계 표현

어나는 곳이지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겨져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돼지의 자궁이었고요. 그의 업식이 돼지로 상되지는 그 무언과 가장 잘 맞았기에 그곳에 태어난 것이라 말이지요. 관세음보살이 개과천생을 권하는 말에 발끈하는 저팔계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지요.

관세음보살이 앞길 막는 나쁜 업 짓지 말라 하자 저팔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얇길이라고요? 얇길? 당신 말에 따르면 바람이나 마시고 살아야겠군. 관법에 따르면 맞아 죽고, 불법에 따르면 굶어 죽는다고 하니 말이 있지. 난 관둘래, 그만둬! 난 이대로 살래! ..... 두 겹 세 겹, 아니 천만 겹의 죄가 쌓인다 해도 난 겁날 것이 없어!”

죄업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둔한 중생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관법을 따르면 맞아 죽는다는 말은 세속의 법 그대로 적용하면 행벌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 지키지 않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살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다음 “불법을 따르면 굶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 불교가 사람 굶어 죽게 하는 종교라는 뜻인가? 심하게 말하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불교는 욕망을 버려라, 소유가 고통을 낳는다 하는 식의 가르침을 주니, 그것에 따르면 세속적인 욕망 추구할 길이 없겠다는 불안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깃장 놓는 저팔계 달래느라 관세음보살 고생이 심하셨는지요? 그런데 저팔계 같은 마음

이 어디 저팔계뿐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탐욕 부리며, 죄지며 살겠다는 중생들, 중생들, 중생들..... 이것이 사바세계의 모습이지요. 그런 사바세계의 중생들 구하시겠다는 불보살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잠깐 묵념!

이! 잠깐 말이 잘못 나갔나요? 그렇지만 삼매선생은 이 대목에서 현실 불교의 모습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과연 “욕망을 버려라”, “소유에서 벗어나라” 하는 식의 소극적, 부정적 표현만을 일삼는 것이 불교의 참된 본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저팔계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거죠. 욕망 버리고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대체 에너지도 안 주고 에너지의 근원을 고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말했지요? 기억하시지요? 욕망을 서원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불자의 삶이 정말 ‘굶어죽는 삶’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굶어 죽는 삶의 모습을 연출하는 불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원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 가는 불자, 서원의 힘으로 지금 여기에 불세계를 일구어가는 불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네요. 스님, 즉 출가자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 재가자에게까지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스님들을 존중하니까 스님들의 삶이 재가자에게도 모범적인 삶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스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참된 정신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기설(大機說), 즉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해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가자라는 특별한 조건에 맞게 설해진 것이, 그 조건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겠지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님들에게는 음계(?)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적인 것을 절저히 금하는 것이죠. 율장의 첫머리가 바로 성행위에 대한 금지로 시작합니

다. 스님들은 생계의 모든 것을 재가자에게 의존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수행에 집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성적인 에너지는 가장 강력하고 통제가 힘들기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출가자의 규범 가운데 첫머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님의 삶이 이상적으로 여겨지면 어찌 됩니까? 그 규범이 이상적이라 하여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르면 어찌 됩니까? 인류 멸종! 이것이 바로 그 결론 아닌가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 이상으로 내세우면, 재가자의 삶은 불법 문중에서 이등 시민의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이번 삶에서는 도저히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 이번 생에서는 좋은 업이나 지어서 복락을 누리고 다음 생을 기억하자! 다음 생에는 꼭 출가를 해서 불도를 제대로 닦아보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는 것이요, 부처 될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금부터 부처님 되는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님은 스님의 방식으로, 재가자는 재가자의 방식으로! “지금 생에서는 불법 수행 안 할 테니 좋은 업이나 짓고, 불법 수행은 다음 생으로.....”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다음 생의 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 지금 생에서 마음먹었던 것이 자세히 생각날 턱이 없을 터이니, 다음 생에서도 또 무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루었던 버릇은 남을 테니까요, 그 버릇이 바로 업이니깐요. 불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불교를 믿었기에 불교가 ‘굶어 죽는’ 종교가 된 것이라고, 삼매선생 좀 위험한 주장 내놓습니다!

이런 주장, 좀 위험한 주장 같지만 이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번 생에는 좋은 업 지어서 세속적인 행복 누리고 다음 생에는 출가수행자는 방식으로 살고, 그 마음이 다음 생에 계속 반영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출가자들이 나날이 늘어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결국 미루었던 버릇만 남아 계속 불법수행은 뒷전으로 미루는 불교만 남았다는 말이고요. 터무니없는 증거라고 너무 야단치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불법수행은 잠시라도 미루어서는 안 되고, 바로 여기 우리 삶의 무대가 수행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무대를 수행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신이야말로 바로 대승 정신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난다!”,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낚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락 악세라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연꽃을 피우는 참된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가지 않고 열등한 삶으로 소외시키지 않고, 바로 그 삶이야말로 깨달음을 이루어내는 바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유마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근본이 아닐까요?

다시 서유기로 돌아오죠. 그래서 바로 이제 현장법사가 그런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가지러 부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교의 모습을 타파하고 참된 대승의 정신을 찾는 구도의 길, 다시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

##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특허권취득(특허 제10-1467668호)!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으시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 가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 1기의 화분장은 가족 모두 신도화
-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 상호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금 조성
-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 영가등, 천도제, 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 **자격조건** ▶ 전국 사찰 및 교회 중사자분들과 개인토지보유자분(입야/개발제한구역임야 제외) | 농지(전/답 보유하신 분) 우선권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 투자자분들도 상담환영합니다.

◀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 서울 | 부산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상남도 | 제주도 | 대구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 서정울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 김성만  
 ◆ 본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 성지하이츠 2차빌딩) ◆ 홈페이지 :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